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찬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춘계 부흥사경회

주제: 초대교회 이야기
일시: 3 월 31 일(금) - 4 월 2 일(주)
강사: 정민철 목사(뉴하트선교교회)

- 3/31 (금) 오후 8 시: 교회의 시작(사도행전 2 장)
- 4/1 (토) 오전 6 시: 교회의 첫번째 설교(사도행전 2:14-41)
- 4/1 (토) 오후 8 시: 초대교회의 성도의 교재(사도행전 2:42-47)
- 4/2 (주) 오후 12 시: 성도의 죽음(사도행전 7:54-60)

- 교육부 광고

Sight and Sound Trip for Sunday School and Youth Group
일시: 3 월 25 일 (토)
입장료: Adult \$85, Children \$50, Kids age(3-12) \$31

- PCA(미국장로교) 한인동북노회가 4/18(화)로 연기되었습니다.

2017 년 3 월 안내: 이향복 집사
다음 주 기도: 홍성훈/시편 23 편
이번 주 친교: 김경숙/임수연 집사
다음 주 친교: 이영수/전영자 귀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일 새벽기도: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만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에배순서

2017년 3월 19일 인도: 이민영 목사

-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다 찬양하여라”
-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 찬송 (Hymn) 80 장(통 101 장) 다함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s) 95 편 한주루 권사
- 찬양(Choir) “내 주여 뜻대로” 세광찬양대
- 봉헌기도 인도자
-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갈(Gal.) 3:1-14 인도자
- 설교 (Sermon) “시작한 대로” 이민영 목사
- *찬송 (Hymn) 391 장(통 446 장) 다함께
“오 놀라운 구세주”
- *축도(Benediction)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2017. 3. 12. 주일설교 요약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합당하게 행함 (갈 2:11-21)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한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고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란 우리가 산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옛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장사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위해 사는 일은 이미 심판 받았습니. 그를 위해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명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입니다. 뛰어봐야 벼룩인 헛된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로 얻으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살맛은 이 생명을 누리는데 있지 옛날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스스로 높아지는 데, 세상의 인정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즉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맛나게 살게 된 것을 알고 살맛 나게 사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과 만족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힘ियो,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 자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담대한 것은 육신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유대인이어서, 율법을 지켜서, 교회를 다녀서, 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받은 사람이어서 감사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자랑입니다. 베드로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명 받은 것을 알았는데도 마치 유대인 된 것이 근근한 자랑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좋은 교회도 신앙의 성숙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교만하지 않고 상처주지 않고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랑이 무엇인지는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 인정받고 싶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도였음에도 할례주의자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들의 인정을 잃는 것을 꺼려했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점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열심이나 학벌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인정받기를 추구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된 것을 인정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기어코 자신의 공로와 자격을 인정받지 않고는 만족할 수 없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로 살맛이 나지 않으니 다른 살맛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감격과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도 육체를 따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도 실은 그런 평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높이고 베드로를 깔봐서 책망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사도된 귀한 존재인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하기에 사랑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은근히 깔보며 점잖게 충고하는 것보다 사랑하기에 정직하게 책망하는 것이 형제를 살립니다. 형제를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귀한 존재로 볼 때 그 생명이 나타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형제를 위해 기도하며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더이상 육체를 자랑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산 우리이기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깨닫고 굳게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바짝 바른 심령이, 상처입은 감정이, 의심으로 가득찬 생각들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꽃피고 열매를 맺고 기쁨과 능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